

신약 역사 문학과 신학

세션 11 마크 특성, 죄와 질병

Ted Hildebrandt 박사 지음

A. 서론: 마가복음의 간결함 [00:00-4:19]

A: A- D를 합친 것; 00:00 -14:37 마가복음의 기적

여러분 모두 봄 방학을 잘 보내셨기를 바라며 마가복음으로 돌아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난번에 우리는 마가복음의 서론적 내용을 살펴보았고, 인자와 그 다양한 측면, 심지어 인자라는 용어가 그리스도의 인간성에 사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다니엘 7장에서 '인자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심' 과 인자라는 용어의 신적 측면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가복음에서 중요한 용어인 인자라는 용어를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른 다른 용어는 용어가 아니라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그것은 메시아의 비밀이라고 불립니다. 우리는 제자들에게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귀신들에게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귀신들에게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간구자들, 즉 고침을 받은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주목했습니다. 우리는 치유받은 사람들, 악마들, 그리고 제자들이 두 가지 다른 이유로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했을 가능성을 설명했습니다. 분명히, 그런 다음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나가서 모든 사람에게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그가 그들에게 그렇게 나가기를 원했던 이해력이 없었던 특정한 지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메시아의 비밀과 인자, 그리고 마가복음의 초기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제가 하고 싶은 것은 마가복음의 다른 것들, 주로 마가복음의 특징들에 대해 논의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의 주요 특징 중 하나는 간결함인데, 여러분이 이것을 읽어 보면 마태복음은 28개의 긴 장이 있는 반면, 마가복음은 16개 장으로 강렬하고 빠른 반면, 누가복음은 24개 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누가복음의 장은 매우 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약 1,068개의 절이 있고, 누가복음은 약 1,147개의 절이 있고, 마가복음은 661개에 불과합니다. 마가복음은 누가복음의 절반 정도 크기 때문에 매우 간결합니다. 마태복음에는 훌륭한 5개의 설교가 있는데, 기억하시겠지만, 올리브산 설교, 산상 설교, 열두 제자의 파송, 왕국의 비유, 공동체 지침, 이 5개의 설교,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주요 가르침입니다. 마가는 하나를 제외하고 모두 삭제하고, 올리브 산 설교에 대해 약간 언급하는데, 이는 종말에 대한 것입니다. 이것은 마가복음 13장에 있었고, 마태복음 24장과 25장과 평행을 이룹니다. 그래서 마가는 예수님의 말씀을 많이 다루지 않았고, 이에 대한 몇 가지 통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알기를 바라지는

않지만, 그저 마음속에 간직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의 구절 중 약 60%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붉은 글자 성경을 보면 붉은 글자입니다.

누가복음은 약 51%입니다. 이제 마가복음, 그리고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할 것은, 마가복음은 절반 크기이고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말씀이 60%인 반면, 마가복음은 42%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22% 이상 줄어든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마가는 예수님의 행동에 더 초점을 맞춥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가복음에서 전개된 기적들을 볼 것이고, 마태는 기적들 중 일부를 요약하는 반면, 마가는 기적들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마가는 예수의 말씀을 축소하여 요약, 즉 짧은 요약을 제공하는 반면, 마태는 그것을 긴 담화로 발전시킬 것입니다. 반면에 마태는 예수의 기적들을 축소하여 그것들에 대한 짧은 설명을 제공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마가복음과 다른 복음서를 구분하는 이 책의 기본적인 특징입니다.

나. 예수의 기적에 참여한 세 사람: 간청자들 [4:19-8:13]

제가 다음으로 하고 싶은 것은 마가 복음이 어떻게 기적을 행하는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간결함에 대해 이야기했고, 마가는 단어보다는 행동에 초점을 맞춥니다. 예수님은 “먹을 시간이 너무 없다”는 짧고 강렬한 내용으로 예수님과 마가 복음의 기적에 대해 설명합니다. 저는

마가 복음이 어떻게 기적을 전개하는지 살펴보고, 마가 복음의 기적에 접근할 때 기적을 이해하는 이런 종류의 삼각형 방식을 사용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볼 것은 세 가지 기본적인 그룹이 상호 작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실 것이고, 여기서 치유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예수님 께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이 오고 있는데, 우리는 그들을 간청자라고 부를 것입니다.

나병을 앓은 사람이든, 고열을 앓은 베드로의 장모든, 예수님 앞에 내려준 네 친구가 있었던 불구자든 말입니다. 그래서, 간청하는 사람들이 있고, 예수님께 오는 사람들이 있고, 마가복음에서 흥미로운 점은 첫째, 세 명의 참여자를 살펴보겠습니다. 간청하는 사람들이 있고, 치유를 위해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있고, 보통 제자들은 예수님과 어울립니다. 그래서 간청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러 옵니다.

제자들은 보통 예수님 곁에서 기적을 행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자들이 있는데, 보통 바리새인들이고, 그들은 항상 예수님을 지켜보며 모든 것이 코셔가 되도록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 세 그룹이 있습니다. 치유를 요청하는 사람들, 제자들, 반대자들입니다. 이 세 그룹은 예수님과 다른 방식으로 상호 작용합니다. 예수님은 이 삼각형의 한가운데에 관여하실 것이고, 예수님은 세 그룹 모두와 상호 작용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많은 기적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흥미로운 점은, 제가 이걸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 오는 간청자들에 대한 것입니다.

마가복음에서 간청자들이 치유를 요청하며 왔을 때, 그들은 이미 믿음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흥미로운 점은, 마가복음 2:5에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사람들이 지붕을 파고 그 사람을 예수님 앞에 내려놓아 절름발이가 된 사람을 고치려 했을 때, 그들은 군중을 지나갈 수 없었기 때문에 지붕으로 올라가 파고 그 사람을 예수님께 내려놓았습니다. 이 사람은 절름발이였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치유를 위해 그에게 오는 간청자들, 믿음으로 치유를 요청하는 그들을 칭찬합니다. 그것은 마가복음 2:5이고, 이제 마가복음 5:34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고쳤느니라. 평안히 가서 고통에서 벗어나라.” 여기 출혈하는 여자가 있습니다. 그녀는 모든 의사를 찾아갔고, 예수님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 여자가 군중을 헤치며 “그의 옷만 만질 수 있다면” 하고 생각하며 그를 만졌고 그녀는 고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녀가 고침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은 그 여자에게 돌아서서 그녀를 발견하고 그녀를 보고 그녀의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고쳤다.” 우리는 이전에 말했듯이, 그것은 일종의 깨끗함/더러움의 문제입니다. 출혈하는 여자가 깨끗하신 예수님을 만졌을 때, 그녀가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레위기에서 예수님이 더러워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녀의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마가복음 5:36

에서 예수님은 회당장 야이로에게 돌아서서 기본적으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달리다 koum*”하고 소녀가 일어선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에게 오는 간청자들의 믿음을 칭찬하시는 듯하다.

다. 예수의 기적들 - 제자들과 반대자들 [8:13-10:34]

흥미로운 점은, 이와 대조적으로, 이러한 기적이 내려올 때 예수께서 제자들을 어떻게 묘사하시는가입니다. 예수께서 바다를 가라앉히실 때, 그는 제자들에게 “왜 그렇게 두려워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에서 제자들은 두려워하거나 두려워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그러므로 여기서 예수께서 바다를 가라앉히시고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믿음이 없다고 꾸짖으십니다. 그것은 예수께서 와서 그들의 믿음을 칭찬하는 이러한 간청자들과 대조됩니다. 그들은 무서워했고, 예수의 제자들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며 서로에게 “이 사람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파도까지도 그에게 복종하는가?”라고 물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그것이 아마도 욥기에서 언급하는 바를 보여드렸다고 생각합니다. 욥기에서는 야훼/여호와, 바다의 파도 위를 걷는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흥미로운 개념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오, [믿음이 적은] 자들아.”라고 말했습니다. 온 사람들, 즉 간청하던 사람들은 그들의 믿음으로 인해 칭찬을 받았습니다.

반대가 커지고 우리는 2장 7절에서 이런 것을 봅니다. 그 사람이 쓰러지고, 네 사람이 불구가 된 친구를 쓰러뜨리고, 여기서 반대자들은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말하느냐? 그는 신성모독을 합니다.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느냐?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니라.” 그래서 여기에 반대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을 고치시면서 당신의 죄가 용서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는 “일어나 걸어가라”고 말씀하지 않고, 먼저 “당신의 죄가 용서되었습니다”라고 말씀하시고, 반대자들은 기본적으로 “이 사람이 누구야? 왜 이렇게 말하느냐? 그는 신성모독을 합니다.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느냐?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니라.”라고 말하며 겁에 질려 있습니다. 글썄요, 그것이 요점입니다. 그래서 그의 반대자들은 반대자들의 말을 듣습니다. 마가복음 3:22 “그는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그래서 반대자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마치 사탄의 힘으로 그렇게 하시는 것처럼 해석합니다. 그래서 이런 반대자들은 많은 치유 이야기에 동정심 없이 등장하며, 오히려 예수께서 자기들의 법을 따르지 않는다고 비판하거나 어떤 다른 권능을 통해 그렇게 하셨다고 비난합니다.

마가복음의 이적과 요한복음의 이적 [10:34-14:37]

이제, 이 기적들과 함께 제가 여기서 하고 싶은 마지막 한 가지는

마가복음의 기적과 요한복음을 비교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기본적으로
 요한이 "표적 기적"이라고 부르는 것을 합니다. 이것들은 특별한 기적들이며,
 기적에 다가가서 기적을 준비하는 것과 매우 비슷하고, 그런 다음 요한은
 기적을 행하고 그 기적은 내려옵니다. 이제 요한은 이것들을 설정하고,
 이것들이 "표적 기적"이라고 불리는 것을 요한복음에서 설정합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에서 흥미로운 점은 마가복음의 믿음, 예수님께 오는 사람들이
 믿음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에서 믿음은 기적 이후에
 옵니다. 다시 말해서, 기적이 일어난 후에야 사람들은 믿음을 가졌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요한복음 2:11, "이것은 예수께서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신 첫 번째 표적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물을 포도주로
 바꾸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 그는 잔치 때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왔을 때 물을 포도주로 바꾸었고, 그는 사람들을 위해 물을 포도주로
 바꾸었습니다. 예수는 수백 갤런의 포도주에 해당하는 돌통을 채우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는 포도주를 만들었고, 그들은 그것을 결혼식을 주관하는
 사람에게 가져가서 말했습니다. "와, 이거 좀 보세요. 지금까지 마신 것 중에
 제일 맛있어요." 그런 다음 예수는 요한복음 2:23에서 "예루살렘에 계실 때,
 유월절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음, 먼저 요한복음 2:11로 돌아가서 "
 이렇게 하여 그는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셨고, 그의 제자들은 그를 믿었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11에서 우리는 예수가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것을 보았고, 그 기적의 결과로 그의 제자들이 그를 믿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꾸지람도 없고, 반대자도 없었지만, 그들은 그저 그를 믿었습니다. 요한복음 2:23에서도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에 계시는 동안 유월절에 많은 사람이 그가 행하는 표적을 보고”, 그러자 어떤 반응이 있었을까요? “그 표적(이 표적 기적)으로 인해 그들은 그의 이름을 믿었습니다.” 따라서 요한복음에서는 기적에 대한 설정이 다릅니다.

마가복음에서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왔고,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요한은 기적을 사용했고, 기적이 끝난 후에 반성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었고, 사람들도 기적의 결과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표적 기적은 그들이 그것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에서, 마가복음의 표적과 기적은 하나님 왕국의 도래와 하나님 왕국이 이 세상에 침입하는 것을 보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기적을 행하신 것은 그가 이를 행할 권한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는 서기관과 바리새인과는 다릅니다. 예수님은 심지어 귀신을 명령하실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질병을 다스리는 능력이 있고, 예수님은 물 위를 걸으실 수 있고, 예수님은 바람을 가라앉히고 파도를 가라앉히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왕국에 침입하시고,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이 권한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 왕국이 도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글쎄요, 마가는 그것을 하나님 왕국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기적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이고, 나중에 특정 기적에 대해 다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불구가 된 사람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몇 분 후에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마가복음의 생생한 세부 사항 [14:37-16:13]

B: EG 결합; 14:37-25:50; 마크의 생생한 사실주의

마가복음은 생생함과 그래픽한 세부 사항을 통해 사물을 기록합니다.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실제로 살아있게 만드는 이런 작은 세부 사항을 포착하고, 예를 들어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나가셔서 사탄의 유혹을 받으시고, 사탄이 “이 돌들을 빵으로 만들어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신명기 4-8절을 인용하여 “사람은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는 그를 성전 꼭대기로 데려가서 “내려앉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그의 천사들이 너를 받들어 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너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다음 그는 그를 산으로 데려가서 세상의 모든 왕국을 보여줍니다. “엎드려서 나를 경배하라. 그러면 이 모든 왕국을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신명기에서 대답하십니다. 그래서 사탄이 예수님을 공격하는 가운데 구약성경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신명기에서 대답하십니다. 마가복음에서는 매우 다릅니다. 마가복음에는 이런 강렬한 작은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서 그는 “예수께서 광야로 나가시어 들짐승들

가운데 계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 들짐승들이 어디서 왔을까요?
 ? 마가복음은 예수께서 들짐승들과 함께 광야에 계셨다는 사실을 언급합니다.
 그것은 1장 13절에 있습니다. 이제 마가복음 1장 36절에서 예수께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보통 예수께서는 그냥 귀신을 쫓아내시고 귀신은 나갑니다.
 마가복음은 “그리고 그 영이 비명을 지르며 나왔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그래서 여러분은 이 작은 “비명”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거기에서
 발견되는 이런 그래픽하고 생동감 넘치는 세부 사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F. **예수의 분노와 마가복음의 문학적 시제** [16:13-20:57]

이제 제가 지적해야 할 또 다른 점은 마가복음 3:5에서 예수님이
 흥미로운 방식으로 묘사되어 있고, 예수님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설명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안식일에 무엇이 합당하냐?’ 고
 물으셨습니다. 기억하시죠, 그들은 안식일에 대해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
 선을 행하는 것이냐 악을 행하는 것이냐? 생명을 구하는 것이냐 죽이는
 것이냐?’ 하지만 그들은 침묵하고 그에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왔습니다. 그는 손이 오그라들었고, 이
 바리새인들은 그가 안식일에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고쳐줄지 보고
 싶어했습니다. 예수님은 ” 안식일에 무엇이 합당하냐 악을 행하는 것이냐?

생명을 구하는 것이냐 죽이는 것이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대답하지 않고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

예수께서 분노하여 그들을 둘러보셨습니다.” 마가복음은 그들이 침묵한다는 사실을 지적합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은가?”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분노하여 그들을 둘러보셨다”고 말합니다. 우리 문화에서 우리는 분노에 대한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끼어들어서 “잠깐만요. 산상수훈에서 예수께서 형제에게 화가 난 사람은 마음속으로 살인을 저지르게 한다고 말씀하지 않으셨나요?”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화가 난 것을 봅니다. 마가복음은 “예수께서 화가 나셨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니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구약 성경 수업에 저를 초대하셨을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은 여러 번 화가 나셨고, 땅이 갈라져서 이 모든 사람들을 삼켰고, 하나님의 분노가 터져 불뱀이 사람들에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분노를 많이 보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무시하고 기본적으로 그것은 구약 성경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사랑스럽고, 친절하고 자비로운 예수님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그분께서 분노하시며 그들을 둘러보시고, 완고한 마음을 깊이 괴로워하시며 그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라’고 말씀하시니, 그가 손을 내밀자 그의 손이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 반대자들이 “

나가서 헤롯당원들 과 어떻게 예수를 죽일지 모의하기 시작했습니다.”

마가복음 3장 초반입니다.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고쳐 주신 후의 일입니다.

그래서, 마크는 예수의 내면적 세부 사항을 짚어냅니다. 예수가 그들에게 화를 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화를 내는 데는 요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문화권에서는 화를 내는 것에 대해 너무 단조롭게 접근해서 극단적이거나 어떤 종류의 경멸적인 용어로 분류하지만, 저는 누군가가 화를 내야 할 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화를 내지 않을 때, 무언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도 화를 내며, 모든 화를 없애려고 할 때는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이제, 화를 내야 할 때와 내지 않을 때가 있고, 예수는 여기서 화를 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예수가 있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고, 예수도 그들의 완고한 마음에 화를 냈고, 그것은 우리에게도 모델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픽 세부 사항, 마크는 그런 종류의 것을 짚어냅니다.

여기 그가 가장 좋아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리스어 단어로, 영어로 옮겨온 *euthus* 입니다. 제 그리스어 학생들은 이 단어를 알아볼 수 있을 것이고, “즉시”라는 뜻입니다. 마가는 이 책에서 *euthus* 라는 용어를 42번 사용합니다. 1장 12절, 5장 42절 등 몇 가지 참고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마가는 이 단어를 즉시 많이 사용합니다. 이 단어를 계속 반복해서 사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즉시”라는 단어는 서사가 빠르게 전개된다는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이것은 즉시 일어났고, 저것은 즉시 일어났고, 모든 것이 빠르게

진행됩니다. 이것은 마가가 가장 좋아하는 단어 중 하나이며, 그는 이 단어를 42번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마가는 액션 책임니다.

그는 또한 현재 시제를 많이 사용하는 반면, 마태는 과거 시제를 더 많이 사용하고, 그리스어 시제에 대한 큰 논쟁이 있고, 저는 그 모든 것에 대해 말하고 싶지 않지만, 마가는 현재 시제를 많이 사용하고 그것이 정말로 여러분에게 사물을 정면으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현재 시제는 사물을 정면으로 가져오고, 마가는 이것을 즉시, 즉시, 현재 시제, 현재 시제로 하여 사물을 더 생생하게, 더 많은 행동으로 가득 채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마가의 특징적인 세부 사항 중 일부일 뿐입니다.

G. 마가의 현실주의 - 제자들의 이해 부족과 목수로서의 예수 [20:57-25:50]

이제 마가복음의 현실주의는 제자들의 둔함과 제자들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드러납니다. 그래서 마가는 그들이 비유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을 잘 포착합니다. . 예수의 죽음에서 예수는 그의 죽음을 설명하지만 베드로는 이해하지 못해서 베드로가 예수를 꾸짖고 나서 9:32에서 “인자는 사람들의 손에 배반당할 것이다. 그들은 그를 죽이고 사흘 후에 그는 살아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예수가 자신의 죽음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 “그러나 그들은 그가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두려워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두려움이 다시

찾아온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그에게 물어보려고.” 그래서 그는 “글쎄, 나는 죽을 거야”라고 말하고, 그들은 모두 듣고 “와, 이건 금물, 재밌는 파티에 가서 모두에게 ‘내가 죽을 거야, 응, 그러고 나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날 거야’라고 말하는 건 안 돼.”라고 생각합니다. 글쎄요, 그런 파티에서 사람들과 함께 죽음에 대해 이야기하면 모든 것이 조용해집니다.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했고, 그에게 그것에 대해 묻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시점에서 제자들은 심지어 그를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제자들은 문지기 역할을 할 때, 그리고 누가 예수에게 갈 수 있고 누가 갈 수 없는지 결정할 때, 특히 어린아이들이 예수에게 올 때, 제자들이 어린아이들을 밀어내고 예수가 “어린아이들아, 왕국은 이런 것과 같다”고 말할 때 예수는 제자들을 꾸짖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정말로 이해하지 못했고, 마가는 이 사실을 알아챘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여기 기독교 교회의 지도자들이 있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로 내려와 죽고 부활하고, 이들은 그가 선택한 열두 사도이고, 유다는 배신으로 죽고,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이 사도로 선택되고, 그들은 열두 사도를 파견하고, 흥미로운 점은 그들이 문지기일 때, 예수는 그들을 꾸짖고 기본적으로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게 하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를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만 이해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그의 가족조차도 그에게 달려들었고, 마가는 이것을 설정합니다. 마가복음 3:21과

그의 가족 구성원들, 우리는 마리아와 야고보와 요셉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으며, 다른 구절에서 알 수 있는 사람들의 이름 중 일부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가 미쳤다고 말했기 때문에 그를 잡으러 왔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가족 구성원들이고, 그들조차도 그를 이해하지 못했고, 그가 미쳤다고 생각했습니다. 마가복음 3:21 “그의 가족이 이 말을 듣고 그를 잡으러 갔습니다. 그들은 ‘그가 미쳤다’고 말했습니다.” 율법의 선생들은 그가 귀신의 왕인 베엘제붓에게서 왔다고 말했고, 그것이 그가 귀신을 쫓아내는 방식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가족은 그를 이해하지 못했고, 그의 제자들도 그를 이해하지 못했고, 마가는 이것을 이어받았고, 그에게 묻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고, 그 두려움이라는 생각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마가복음에만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가 목수의 아들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보통 목수로 요셉을 나열하고, 따라서 예수는 목수인 요셉의 아들입니다. 마가복음 6:3에서는 오직 여기서만 예수 자신을 “목수”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서 그는 예수 자신이 목수라고 불렸다는 사실을 언급합니다. 그들은 아버지와 아들이었고, 오늘날에는 “음, 목수는 정말 좋은 돈을 벌어요”라고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예수가 매우 가난한 가정 출신이었고 노조 임금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예수는 목수였습니다.

마가가 여기서 다루는 또 다른 주제는 우리가 이전에 이야기했던

고통에 대한 강조입니다. 마가는 그리스도를 고통받는 종으로 보는 관념을 다루고 있으므로 마태복음에서 그리스도는 왕이었지만 마가복음에서 예수는 고통받는 종이 될 것입니다. 8:31, 9:31, 10:31. 마가가 예수의 고통을 묘사하는 부분이 여기이므로 마가는 그것을 다룰 것입니다.

H. 예수께서 폭풍을 가라앉히시다 [25:50-28:08]

C: 홍콩 결합; 25:50-37:07; 마크의 사소한 캐릭터

이제, 우리는 사소한 인물들에 대해 살펴보고 싶습니다. Joel Williams 가 쓴 정말 흥미로운 기사가 있는데, 저는 그와 잠깐 가르쳤고 그를 엄청나게 존경합니다. 하지만 그는 마가복음의 사소한 인물들에 대한 기사를 썼습니다. 훌륭한 기사이고 고려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온라인에 올라와 있고, 오디오와 전문이 무료이며, 자유롭게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물론 수업에서는 읽어야 하지만, 사소한 인물들에 대한 훌륭한 토론입니다. 이제, 제가 하고 싶은 것은 마가복음에서 세 가지 보트 장면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보트 장면에 있는 장면이 세 번 나옵니다. 마가가 베드로의 복음을 쓰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앞서 파피아스의 논평에서 언급했듯이, 마가가 베드로의 복음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 보트 장면을 살펴보고 싶습니다. 배 장면에서 보실 것은 대개 제자들에 대한 질책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배 위에 계시거나

어떤 위기가 발생하면, 그분은 제자들을 질책하시고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폭풍에서, 당신은 예수님이 폭풍을 가라앉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두려워하고, 제자들은 두려움과 믿음의 부족으로 질책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는 제자들에게 “왜 그렇게 두려워하니?” 다시 한번, 마가복음에서 두려움의 개념이 나오는 것을 주목하세요. “왜 그렇게 두려워하니? 아직도 믿음이 없니?” 그래서 예수님은 첫 번째 이야기에서 그들을 질책합니다. 그는 폭풍을 가라앉힐 것입니다. 파도가 배 위로 밀려오고 제자들은 무서워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바다의 사람들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어부였고, 베드로와 안드레도 어부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물을 잘 알고 있었고, 그것이 그들이 생계를 위해 한 일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바람이 불어와서 무서워합니다. 바람은 모여듭니다. 갈릴리해의 서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갈릴리해로 몰려들고 지중해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제트 엔진처럼 모여서 아래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갈릴리해에는 폭풍이 옵니다.

I. 주인공들의 신앙과 두려움 [28:08-30:53]

이제 매우 흥미로운 점은, 그가 제자들의 두려움과 믿음의 부족을 질책하는 동안, 4장의 이야기와 같은 맥락에서, 5장에는 게 라사 지방의 귀신 들린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그 다음에 게 라사 지방의 귀신 들린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 그들은 고침을 받고, 사람들은 마을로 와서
 그들도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이 사람을 고친 예수를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예수께 그들의 두려움 때문에 그들의 영토를 떠나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분명히 그들의 두려움을 극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의 관점에서 이야기의 침묵과 게 라사 지방의
 귀신 들린 사람 사이에 이런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에서 사람들은
 예수께 떠나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들은 두려움을 극복할 수 없지만 그
 사람은 분명히 극복합니다.

야이로 의 딸, 회당장의 딸, 그래서 그는 예수께 와서 기본적으로, 내
 딸이 죽을 거라고 말하고, 그런 다음 그들이 와서 그의 딸이 죽었다고
 말합니다. "더 이상 주인을 귀찮게 하지 마세요, 예수를 놓아주세요,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예수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세요."라고 말합니다.
 야이로 의 딸의 이야기에서 나오는 동일한 두 가지 주제: "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세요." 그런 다음 예수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그녀의 아버지를
 데리고 가서 그 소녀를 죽음에서 살립니다. 하지만 그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세요."라고 말합니다. 폭풍이 가라앉는 것에서 나온 동일한 주제,
 두려움과 믿음은 게 라사 지방의 귀신 들린 사람과 야이로 의 딸, 그리고
 출혈하는 여자를 통해 반향을 일으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딸이 죽었을 때 , 출혈하는 여자가

들어와 그의 옷을 만졌고,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는 그녀를 바라보며 당신의 믿음을 칭찬했고, 그녀는 무서워했습니다. 그녀는 두려움에 떨며 예수님께 다가와서 두려워했고, 예수님을 만진 후 군중 속으로 다시 움츠러들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돌아서서 “누가 나를 만졌어?”라고 물었습니다. 제자들은 “그렇죠, 예수님, 누가 당신을 만졌어? 모두가 밀치고, 모두가 당신을 만지고 싶어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아니, 뭔가 일어났어.”라고 말씀하셨고, 그 여자가 그에게 오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을 보셨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그녀는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자신이 치유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이야기에서 제가 제안하는 것은 폭풍이 일어나고 예수님이 제자들의 두려움과 믿음의 부족을 꾸짖는 것입니다. 그런 두려움과 믿음의 부족은 게라사인의 귀신 들린 자, 야이로 의 딸, 그리고 출혈하는 여자 의 이야기에서 반향을 일으키고 , 그 이야기는 바로 이 이야기 다음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첫 번째 배 이야기가 있고, 그 두려움과 믿음은 그 다음 세 이야기에서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J. 이해와 단역 캐릭터 [30:53-33:04]

이제, 여기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시고 배에 오르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 그리고 다시 마가복음 6:45에 있습니다. 그는 ” 용기를 내어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이 빵을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굳어졌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빵을 깨닫지 못했고, 이것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꾸짖으신 것 중 하나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꼭 꾸짖으신 것은 아니지만, 본문에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적혀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이러한 이해 부족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물 위를 걸으시며 ” 용기를 내어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이 빵을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굳어졌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바로 누가 등장합니까? 이 가나안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빵을 이해하지 못하고, 믿음에 장애물이 있고, 그들은 이 두 가지 사이의 연관성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 하지만 이스라엘 북쪽 레바논 출신의 시리아 -페니키아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제자들이 그곳에서 장애물을 가지고 밀려나는 것을 극복합니다. 이 여인은 장애물을 극복합니다. 그녀가 와서 그녀의 딸이 귀신이 들렸고, 예수님은 그녀의 반응에서 드러난 이해에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 아이들을 위한 음식을 가져가서’ 또는 유대인들을 위해 ’ 개들에게 주는 것은 옳지 않다’ 고 말씀하셨고, 이방인인 그녀는 ’ 예, 주님, 하지만 개들도 식탁에서 떨어진 음식을 먹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와, 이 여자는 믿음이 있구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실제로 모델로 사용되거나 대조적으로 사용됩니다. 다시 말하지만, 간청자가 예수님께 와서 그녀의

믿음에 대해 칭찬을 받습니다. 이것은 제자들과 함께 “당신의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왜 믿음이 부족합니까?”와 간청자, 치유받은 사람들, 제자들 사이의 긴장과 같은 시간입니다. 이것은 이 이야기에서 실제로 나타나고, 그녀의 딸은 제자들이 할 수 없는 일인 장애물을 극복했기 때문에 치유됩니다.

K. 듣는 것과 보는 것 그리고 주인공들 [33:04-37:07]

그리고 세 번째 배 이야기는 “빵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빵을 가져왔는지 물으시고, 실제로 바리새인들의 누룩에 대해 말씀하시고 경고하기 시작하셨는데, 이것은 마가복음 8:18에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바리새인들의 누룩이나 누룩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셨고, 제자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왜 그가 바리새인들의 누룩에 대해 말씀하시는 거지? 그는 배고프실 거야. 우리는 빵을 가져오지 않았어. 오, 아니! 그는 아마 배고프실 뿐이고 우리가 음식을 가져오지 않았다고 꾸중하시는 거야.”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4,000명, 5,000명을 먹이신 예수님이시고, 그들은 음식에 대해 걱정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아직도 보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예수께서는 그들이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는 5,000명을 먹이셨고, 4,000명을 먹이셨고, 여기서 그들은 그가 음식에 대해 걱정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아직도 보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굳어졌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느냐?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라고 말합니다.

구약성경을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머리가 터질 것입니다. “빙”—이사야 1장의 예언은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나가서 예언하라고 말씀하신 것과 비슷한 내용을 말합니다. 그들은 이런 것들을 보고 들을 것이지만 이해하지 못할 것이고, 그들의 마음은 굳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전달되는 메시지 전체가 이사야에게 같은 내용을 전합니다. 이사야의 메아리가 들립니다. 흥미로운 점은 제자들이 기본적으로 보고 있지만 보지 못하고 듣고 있지만 듣지 못한다는 이유로 꾸지람을 듣고 이야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마가복음 8:18 바로 직전에 예수께서 귀머거리를 고치셨습니다. 예수께서 “너희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니라”고 말씀하셨으므로 예수께서는 귀머거리를 고치셨고, 그가 “열려라”고 말씀하셨고 그 사람의 귀가 열렸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기서 당신은 예수님이 한 남자를 고치고, 바리새인들의 누룩에 대해 묻고 빵을 가져오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제자들을 꾸짖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너희는 여전히 듣지 못한다. 내가 하는 말을 듣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방금 청각 장애를 고쳤습니다.

그런 다음 8장 18절 바로 뒤에, 그 배 장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예수께서 벳새다에서 눈먼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갈릴리 바다 바로

북쪽에 있는 마을인 벳새다에서 예수께서는 이 눈먼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한 사람의 귀를 고치시고, 그의 귀를 “열어” 주시고, 또한 눈먼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와 함께 배에 올라타서 예수께서 그들이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것을 꾸짖으셨습니다. 그 양쪽에서 예수께서는 누군가의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것을 고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마가가 이 기적들을 아름답게 설정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으며, 거기에는 큰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여기 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예수께서 그의 귀를 열어 주셨지만, 그의 제자들의 귀는 닫혀 있었습니다. 베싸이다에는 앞을 볼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를 고쳐서 시력을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제자들은 예수께서 하시는 일을 볼 수 없으므로, 예수께서 음식에 관해 말씀하시는 줄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가는 이 세 가지 배 장면을 아름다운 방식으로 설정합니다. 마가는 예수의 행적에 초점을 맞추지만, 단순히 “예수께서 특별한 기적을 행하셨다”는 관점에서 예수의 행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가는 두려움과 믿음, 듣고 보는 것에 대한 요점을 강조하기 위해 이야기를 설정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의 정말 멋진 측면입니다.

L. 마가복음 15:39 [37:07-39:45]의 로마 백부장

D: LN 결합; 37:07-45-48; 백부장과 마크의 결말

또 다른 것은, 마가복음의 마지막에 마가복음은 로마인들에게 쓰여졌는데, 아마도 로마 교회였을 것이고, 아마도 기원후 65년경이었을 것입니다. 꽤 일찍 쓰여졌을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초기 복음서이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아마도 후기 복음서일 것입니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논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가복음을 먼저 쓰지만, 많은 사람들이 마태복음을 먼저 씁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점은 마가복음은 로마적 색채가 있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휘, 주제, 그리고 베드로가 마가복음과 함께 로마에 있었던 것에서 이를 알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마가복음 15:39에 나오는 백부장이 예수의 십자가 처형에서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떠납니다. 베드로는 그 사람을 모른다고 말하며 그를 부인하고, 유다는 그를 배신합니다. 하지만 마가복음에서 누가 등장할까요? 글썄요, 로마인에게 편지를 쓴다면, 누가 등장하기를 원하시나요? 그래서 15:39에 나오는 백부장은 "예수 앞에 서 있던 백부장이..." 그러니까, 여기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고 있고, 이 백부장은 아마 100명의 군인이 있을 겁니다. 그 장교는 몇 명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까요? 이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그는 예수의 양쪽에 두 명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 사람은 주변을 돌아다녔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가 소리치며 "예수 앞에 서 있던 백부장이 그의 소리를 듣고 그가 죽는 것을 보았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백부장은 아마도 수백,

수백 명의 사람들이 죽는 것을 보았을 테니, 그는 이것을 알았지만, 예수를 보고 그가 죽는 것을 보았을 때, 백부장의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그것을 이해하는 로마 백부장이 있습니다. 그는 이해합니다. 그래서 로마 공동체에 편지를 쓸 때 그것이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조차도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배에 있었지만 여전히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그들이 음식, 생선, 빵을 먹은 후에도 그들은 여전히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두려워했고 이해하지 못했고 믿음이 없었습니다. 여기 백부장이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보고, 그의 기적을 보지 못했고 그의 정교한 가르침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어떻게 죽었는지 보았을 때, 그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았습니다. 마가복음에서 그것을 이해하는 사람은 로마 백부장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시 한 번 책의 로마적 풍미를 조금 보여줍니다. 다시 말해서, 로마 백부장은 다른 사람들보다 그것을 더 많이 이해하는 사람입니다.

마가복음의 끝 - 두려움과 믿음과 저자 [39:45-43:25]

그래서 책의 끝도 흥미롭고, 나중에 다시 다루겠지만, 마가복음 끝에서 여인들의 두려움과 도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은 16:8에서 정말 갑자기 끝납니다. 우리는 텍스트적 변형이 있다는 것을 보여드릴 텐데, NIV나

현대 번역본, ESV, NRSV가 있다면 16:8 바로 뒤에 줄바꿈이 있고 정말 갑자기 끝나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마가복음의 마지막 페이지가 떨어져 나갔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책이 실제로 거기서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너무 갑작스러운 결말이라 여인들은 두려워하고 겁에 질렸지만, 마가복음에서 두려움과 공포, 믿음의 부족이라는 주제가 여러 번 나오는 것을 보면 흥미롭습니다. 이런 주제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지 궁금할 겁니다.

그럼, 제 이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제가 만들어낸 것이고, 그저 제 생각일 뿐입니다. 그래서 책의 마지막이 끝나고, 제자들이 배에서 두려워하는 모습과 예수님이 그들을 꾸짖는 모습이 나오고, 책의 마지막에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여자들이 나타나서 두려워하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궁금해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책은 8절에서 끝나고, 긴 결말이 부드럽게 끝납니다. 하지만 우리의 가장 좋은 원고를 보면, 여자들이 두려워하고 겁에 질려 있는 모습이 8절에서 끝납니다. 마가가 스스로 변명하는 걸까요? 첫 번째 선교 여행(1MJ)의 마지막 부분에서 마가와 바울 사이에 큰 일이 있었던 걸 기억하시나요? 기본적으로 요한 마가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1MJ에 탔지만, 터키에 도착했을 때 마가는 떠납니다. 그것은 너무나 큰 일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요한 마가와 다시는 함께 가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실제로 바나바와의 관계를 끊었고, 그와 바나바는 그곳에서 일종의 형제의 밴드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와 바울은

터키나 소아시아의 어떤 마을에서 바울이 거의 죽을 지경으로 돌에 맞아 죽었을 때 함께 죽음을 보았고, 바나바는 그 모든 것을 통해 그와 함께했습니다. 그들의 관계는 이 요한 마가의 상황 때문에 끊어졌습니다. 요한 마가가 직면했던 것 중 하나가 두려움과 공포에 대한 생각이었고, 이것이 그가 예수께서 광야에서 “야생 동물들과 함께” 있을 때 야생 동물을 언급한 이유일 수 있지만, 그에게는 이런 종류의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제자들이 두려워하는 것부터 다양한 다른 사람들에 이르기까지 책 전체에 그 주제를 묘사합니다. 그런 다음 그는 이 여성들이 두려워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므로 이것이 마가가 1MJ에서 그만둔 이유에 대한 일종의 사과인지 궁금합니다. 그 자신도 두려워했지만 제자들 스스로가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렇게 특이한 것은 아닙니다. 열두 제자는 여러 번 두려워했고, 예수는 그들이 두려워하고 믿음이 없다고 꾸짖었습니다. 마가 자신도 무서워했을 수 있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단지 이론이나 가설일 뿐입니다. 그것은 너무나 터무니없어서, 아마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저는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마가의 관점에서, 저자가 자신의 관점과 사물을 바라보는 방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ㄴ. 마가복음의 끝-두려움과 믿음과 청중 [43:25-45:48]

하지만 그가 편지를 쓰고 있는 공동체, 즉 로마인(로마에서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 네로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과 마가가 이런 것들을 보고, 많은 로마 기독교인들 스스로가 이 시점에서 겁에 질렸다는 것을 깨달았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유대교에 속해 있었고, 유대교의 나사렛파에 속해 있었고, 유대교에서 벗어나 기독교인이 되고, 유대교에 속하지 않는 별도의 종교에 속하게 되면서, 이 사람들 중 일부는 겁에 질려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마가는 공동체에서 “이봐, 로마에 있는 너희들은 겁에 질려 있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와 같은 것을 반영하고, 이것은 아마도 네로가 도시를 불태우고 기독교인들에게 책임을 돌리기 전일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은 네로의 박해의 결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그보다 훨씬 이전일 것이고, 사람들은 로마를 두려워했고, 마크는 그가 편지를 쓰는 독자층을 염두에 두고 이런 주제를 다루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을 보세요. 이건 제 추측일 뿐이고, 제가 보여드리고자 하는 건 저자가 이 영감받은 본문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리고 독자가 이 영감받은 본문에 어떻게 작용하는지입니다. 그래서 저자와 그가 글을 쓰는 독자 모두에게 두려움과 떨림이라는 개념은 예수를 따르는 데 있어 믿음이 부족하다는 것은 마가와 그가 글을 쓰는 공동체 모두에게 큰 주제입니다. 저는 문학 작품을 읽을 때마다 질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요즘 우리 문화권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저자에 대해 별로 묻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무시당합니다. 그들은 “글쎄요,

저자가 누구인지는 모르겠어요”라고 말하면서 너무 쉽게 포기합니다. 저는 저자를 아는 것에서 풍부한 통찰력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오늘날의 책과 비슷합니다. 저자를 더 잘 알수록 저자와 저자의 성격 때문에 그 책에서 온갖 일이 벌어진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자와 독자, 둘 다 정말 중요하고, 저는 둘 다 저자와 독자를 이해하면 독서가 풍부해지고 텍스트의 의미를 이해하는 방식이 풍부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백부장입니다.

ㄱ. 불구자-마가복음 2장 [45:48-49:03]

E: OS를 합치다; 45:48-64:15; 마가복음의 치유

이제 여기서 아주 특별한 구절로 넘어가고 싶은데, 이것은 예수님이 불구자를 고치신 내용입니다. 마가복음은 액션북이기 때문에 여기서 문제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2장에서 예수님이 불구자를 고치신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을 위해 이야기를 들려주고 나서 그 신학적 요점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특정한 것들을 살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집에 계시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밖에는 군중이 있고 모두가 들어가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옵니다. 이 사람의 친구 네 명이고 그 사람은 불구입니다. 우리는 그가 왜 불구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그가 불구이고 매트 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네

사람이 그를 예수님께 데려왔지만 군중 때문에 들어갈 수 없었고 물론 그 당시에는 장애인이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은 쉽게 단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들이 장애물을 극복한다고 말했던 걸 기억하세요? 그럼, 여기, 간청자가 와서 간청자가 장애물을 극복합니다. 장애물은 무엇일까요? 장애물은 그가 걸을 수 없고, 사람들이 사방에 있어서 예수님께 다가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장애물을 극복할 것입니다. 사실, 그것은 오늘날 사람들에게도 정말 좋은 일입니다. “아니오”를 대답으로 받아들이나요, 아니면 장애물을 극복하나요? 그걸 위해 나설까요? 그럼, 누군가가 장애물을 세운다면, 그것을 넘으시나요, 밑으로 가시나요, 아니면 뚫고 가시나요? 장애물이 있든 없든 일어나게 하시나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장애물을 보고 들어갈 수 없다는 걸 알지만, “우리는 낙담하지 않을 거야”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이 그 사람을 고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친구를 예수님께 데려갈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붕 위로 올라가 지붕을 파헤칩니다. 이제, 이 지붕들은 진흙집인데, 아마도 지붕 위에 돌과 진흙을 덧대고, 아마도 가지를 진흙으로 덮은 것으로 만들 것입니다. 우리의 25년 된 널빤지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것을 파헤치고, 예수께서 이 모든 진흙과 석고가 떨어지는 것을 보시고, 그들은 이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보십니다. 누가 있습니까?

제자들이 있고 , 반대자들이 있고, 이 사람이 그냥 쓰러집니다 .

예수께서 그 남자를 보시고, 모든 사람이 예수께서 말씀하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예수께서는 모든 사람이 기대하는 일을 하지 않으시지만, 예수는 항상 예상치 못한 일을 하는 자발적이고 우연한 예수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예수께서 “오, 네 믿음을 보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라고 말씀하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께서 그 사람을 고쳐 주실 것으로 기대하는 방식입니다. 예수께서는 사람들을 고치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치유를 받기 위해 예수께 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대신 “네 죄가 사해졌다”고 말씀하십니다. 갑자기 이 치유는 다른 차원으로 넘어갑니다. “너희 죄가 사해졌다.” 반대자들은 모두 “하나님 외에 누가 죄를 사할 수 있겠느냐?”라고 반응합니다. 요점은, 예수께서 하나님이시며 죄를 사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권위에 대해 말하고 있으며, 마가는 이것을 사용하여 예수께서 권위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분임을 보여줍니다. 예수께서는 “아들아, 네 죄가 사해졌다”고 말씀하십니다.

P. 질병과 죄 고린도전서와 사도행전 [49:03-52:59]

저는 뒤로 물러나서 질문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죄와 질병의 관계는 무엇일까요? 이 주제에 대한 전체 과정을 수강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성경을 훑어보고 죄와 질병의 연관성에 대해 생각해보고 싶습니다. 이런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성경에서 죄와 질병 사이에 연관성이 있는 적이 있습니까? 죄로 인해 질병이나 죽음을 겪은 사람의 예가 생각나십니까? 죄와 질병 사이에 연관성이 있습니까? 글썄요, 어떤 사람들은 “아니요”라고 말합니다. 저는 반드시 연관성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와 질병 사이에 때때로 연관성이 있는지 묻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27-30. 고린도전서 11장이라고 하면 무엇이 떠오르나요? 주님의 만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입니다. 그리고 여기 주님의 만찬에서 사람들에게 합당하지 않은 방식으로 주님의 만찬을 먹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이제, 그것에 대해 많은 토론이 있을 텐데, 만약 여러분이 정말 흥미로운 토론에 관심이 있다면, 고린도전서에 대한 데이브 매튜슨의 가르침을 확인해 보세요. 절대적으로 정확하고, 절대적으로 훌륭합니다. 바울은 그들 중 일부가 합당하지 않은 방식으로 주님의 만찬을 먹었다고 말합니다. 그런 다음 그는 “그러므로 너희 중에 많은 사람이 약하고 병들었고, 너희 중에 많은 사람이 잠이 들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1:30, “잠이 들었다”, 잠이 들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글썄요, “잠이 들었다”는 것은 죽은 것에 대한 완곡한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 중 일부는 합당하지 않은 방식으로 주님의 만찬을 먹었기 때문에 죽었습니다. 죄와 그들의 병 사이에 연관성이 있었을까요? 바울은 “그러므로 너희가 합당하지 않은 방식으로 먹었기 때문에 너희 중에 약한 자도 있고

병든 자도 있고 잠든 자도 있다”고 말합니다. 그들의 죄와 병 사이에는
 연관성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중 일부에 대해 속사포로 말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두 예 모두 신약에 나와 있습니다
).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들어와서 모든 사람이 공유하고 모든 것을
 공유했으며, 초기 교회에서는 사람들이 물건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는
 등의 일을 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기 집을 팔고 돈을 사도들에게
 주자 사도들은 그가 돈을 다 주었는지 물었습니다. 그는 그게 전부라고
 말했고, 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는 하나님께 거짓말을 하고 갑자기
 죽었습니다. 그의 아내가 들어와서, 그들은 그녀에게도 그녀가 모든 돈을
 교회에 바쳤는지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돈을 전혀 바칠 필요가
 없었지만, 그녀가 들어와서 그렇게 했다고 말했을 때, 그녀는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예”라고
 말했고, 제자들은 “당신의 남편을 나르던 발이 당신을 나르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삽비라는 쓰러졌고, 그녀도 죽었습니다. 죄와 질병의 연관성?
 그들은 거짓말을 했고, 그들은 죽었습니다. 아나니아는 거짓말을 했고, 그는
 죽었습니다. 삽비라는 거짓말을 했고, 그녀는 죽었습니다.

Q. 질병과 죄-아론의 아들들과 미리암 [52:59-58:50]

여러분 중 일부는 구약성경의 레위기에서 기억하실 겁니다. 가장

유명한 책은 아니지만, 레위기 10장에서 그들은 주님을 위해 허락받지 않은 불을 바쳤고,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불이 주님에게서 나와 아론의 두 아들을 삼켰습니다. 그들은 죽고, 하나님에 의해 불에 타 죽었습니다.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어겼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을 더럽혔습니다. 그들은 죽었습니다.

민수기 12장의 미리암. 그녀는 모세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이제 미리암이 모세의 누나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모세는 미리암의 남동생입니다. 그녀는 모세보다 15~16살 더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녀는 누나이고, 모세가 바구니에 실려 나일강을 떠내려갔을 때 그를 돌본 사람이 그녀였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모세가 이 모든 것을 얻고 구스 여인과 결혼한 것에 화가 났고, 그녀는 그것에 반대했습니다. 민수기 12장에서 ,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잠깐만, 미리암, 네가 누구와 이야기하는지 알아?"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에게 다가가고, 모세는 지상에서 가장 힘겨운 사람입니다. 심지어 그의 형제 자매조차도 그의 등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그는 항상 유대인들을 등에 업고 있고, 이전 장에서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고, 이제는 그의 형제 자매도 그를 등지고 있습니다. 모세는 지상의 다른 누구보다 완전히 힘겨워하고 괴로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미리암아, 내가 너와 선지자들에게 말할 때는 꿈과 환상으로 말한다. 그러나 내가 모세에게 말할 때는 얼굴을

마주하고 말하는데, 네가 모세를 거스르는 말을 한 것은 어떻게 된 일이냐? 모세는 내 사람이다, 미리암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구름이 떠났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처럼 하얗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말장난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모세의 검은 구스인 아내와 미리암은 하얗게 변했습니다. 오, 미리암, 당신은 하얗게 보이는 것을 좋아합니까? 내가 너에게 하얗게, 눈처럼 하얗게, 나병처럼 하얗게 줄게, 그러면 그녀는 완전히 하얗게 변해. 왜? 그녀가 하나님의 사람, 주님의 종 모세를 대적해서 말했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네가 거기에서 본 것은 그녀가 죄를 지었고, 그 다음에 심판이 있었고, 그리고 나서 그녀는 얼마 후에 치유되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미리암이야.

엘리사와 나아만 도 있는데 그는 시리아에서 왔고 나병이 있었습니다. 엘리사는 요단 강으로 내려가 씻으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글쎄요, 요단 강은 더러운 개울이에요. 저는 거기에 가지 않을 거예요. 시리아에는 좋은 강들이 있어요. 제가 왜 요단 강으로 내려가야 하죠?” 라고 말했습니다 . 하지만 그는 결국 내려가서 일곱 번 물에 잠기고 올라와서 나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돌아왔고 엘리사는 이 시리아 사람에게서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에게서 한 푼도 받지 않았습니다. 엘리사의 종[게하시]은 그 사람이 시리아 사람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그에게 돈을 좀 달라고 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가 간 후에 그를 쫓아가서 나아만 에게 “이봐요,

우리 집에 손님이 왔는데 옷과 돈이 좀 필요해요.”라고 말했습니다. 나아만은 나병이 나았기 때문에 기꺼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두 번 생각하지 않고 그에게 그것을 줍니다. 그는 그에게 전리품을 주고 엘리사에게 돌아와서 그것을 엘리사에게서 숨기려고 계획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당신이 가는 것을 봤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나아만에게 있던 나병이 이제 당신에게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시리아 사람에게서 전리품을 얻었고 나아만에게 있던 나병을 얻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죄와 질병의 연관성 이 있습니다 . 그는 탐욕스러워서 해서는 안 될 때 돈을 쫓았고 이제 그는 나병에 걸렸습니다.

세레 요한의 아빠는 신약성서에서 꽤 유머러스한 한 예입니다. 누가복음에서 볼 수 있듯이요. 세레 요한의 아빠는 아내 엘리사벳이 늙어서 아이를 낳을 것이라는 것을 믿기 어려워합니다. 그는 믿기 어려워서 천사가 “정말이에요? 믿기 어려워요? 이걸 보세요. 아이가 태어나기 전까지는 말을 할 수 없을 거예요.”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자카리아는 말을 못하게 되고 아이가 태어나기 전까지는 말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거기에는 죄와 병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2:22에서 헤롯은 일어납니다. 제 생각에는 카이사레아에 있는 해안선에서 일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태양이 들어오고 그는 일어섰습니다. 그는 금속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마이클 잭슨 같은 옷이었을

수도 있고요. 그는 갑자기 빛나기 시작했고, 모든 사람들이 그가 빛나고 있는 것을 보고, 그는 금속으로 된 옷을 입고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보고, 그는 신이 틀림없다고 생각했지만, 헤롯은 그들이 “그는 신이 틀림없다”고 말하는 동안에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다음 그의 오만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벌레로 치셨고 그는 죽었다고 말합니다.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는 오만함에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12장에서 그를 내리십니다.

이제, 야고보는 이것이 더 이론적이라고 말하지만, 야고보는 야고보서 5:24에서 “장로들을 불러라. 그러면 그들이 누군가와 죄의 병을 위해 기도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베드로전서 2:24에서 “그의 채찍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이사야 53장으로 돌아갑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성경에서 죄와 병 사이에 연관성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제, 당신은 조금 화를 내야 할 것이고, 괜찮습니다. 바로 제가 바랐던 것입니다. 죄가 부딪히는 수준은 네 가지입니다. 예수님의 권위와 커지는 반대, 치유, 죄의 용서, 그리고 반대자들이 여기서 예수님에게 반응할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님이 치유에서 용서로 전환한 이유에 대한 이야기의 맥락이 생깁니다.

다. 죄의 네 가지 측면 [58:50-64:15]

그럼, 저는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고 싶습니다. 예수께서 치유에서 용서로 전환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죄를 용서하는 것이 치유보다 더 쉬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죄와 병은 관련이 있을까요? 이에 대한 답은 '예' 일 것입니다. 그리고 '아니요' 일 것입니다. 이제 죄의 네 가지 다른 측면과 이것이 죄와 병의 관계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가지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우선, 아담의 죄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아담 안에서 죄인입니다." 로마서 5장. 아담은 죄를 지었고 따라서 우리 모두는 그 결과입니다. 사과를 나무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담과 이브의 후손이며 죄인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우리는 죄 많은 세상에 살고 있으며 사람들은 아담의 죄로 인해 병들었습니다. 여기의 전체 우주가 바뀌었고 아담의 죄로 인해 우리가 병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죄와 질병의 연결에는 공동체적 측면도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빼앗은 때를 기억하는 사람이 있나요? 사무엘상 4장과 5장, 역대하 7:13 이하에 나오는 나라들에 대한 심판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가 빼앗겼고,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아 도시에서 도시로 보냈습니다. 법궤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병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흑사병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쥐와 사람들이 죽는 것과 관련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법궤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병들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민족에 대한 심판이 있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개인들만 고통받은 것이 아니라, 온 나라가 고통을 받았습니다.

또 하나 떠오르는 게 있는데, 사무엘하 24장에서 다윗이 백성을 세는 것을 기억하시나요? 다윗이 백성을 세었을 때, 온 나라가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세 가지 선택권이 주어졌는데, 그는 무엇을 할 것인가요? 그래서 3년, 3개월, 또는 3일 동안 재앙이 있었고, 다윗은 “나는 사람의 손에 빠지는 것보다 하나님의 손에 빠지는 것이 낫다”고 말하며 재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재앙은 이스라엘 나라에 내렸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수백 가지 예가 있습니다. 민수기를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하고, 온 나라가 불뱀에게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개인만을 심판하지 않습니다. 아담의 죄는 당신이 누구이든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타락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아담의 죄는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칩니다. 나라 자체가 심판을 받습니다. 바빌론은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요나는 니느웨로 가서 니느웨에게 회개하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그들은 회개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십니다. 그러므로 온 나라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아담의 죄는 모든 사람을 덮습니다. 나라들 자체가 심판을 받습니다. 저는 때때로 우리가 죄와 질병에 대해 생각할 때 개인에 대해서만 생각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 전

우주가 영향을 받았고 모든 나라도 영향 을 받았습니다. 또한 개인은 그들이 어떻게 따르거나 따르지 않는지, 그리고 어떻게 죄를 지었는지에 따라 심판을 받습니다. 죄 많은 나라들은 멸망합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소멸됩니다.

지역사회에서 죄와 질병 사이의 연결은 한 개인에게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런 다음 개인, 우리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와 같은 사람들을 주목합니다.

미리암입니다. 질병을 그들의 심판이나 처벌로 심판받은 특정 개인은

하나님께서 개별적으로 그들에게 내리신 것입니다.

그러면 죄의 마지막 측면은 아담의 우주 전체에 대한 죄뿐만 아니라, 미덕이나 미덕의 부족으로 심판받는 나라들뿐만 아니라, 미리암, 아나니아, 삽비라 와 같은 개인들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당신은 죄와 질병의 연결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은 대리적입니다. 제가 대리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 죄와 질병을 겪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는 슬픔의 사람이고 슬픔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의 채찍으로 우리는 고침을 받습니다. 이사야 53장 "그의 채찍으로 우리는 고침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모든 면에서 고통을 겪으시지만, 죄는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의 질병을 그에게 짊어지십니다. 그는 우리의 질병을 그에게 짊어지십니다.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시고, 그의 채찍으로 우리는 고침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죄와 질병의 연결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전히 죄와 질병의 연결이 있습니다. 다만 대리적입니다.

그는 대리적 대용으로 질병을 자신과 우리의 죄에게 짊어지셨습니다.

그러니까 죄와 질병 사이에는 연관성이 있는 셈이죠.

ㄷ. 죄와 병을 강제로 연결하는 것에 대해 정말 조심하라 [64:15-69:35]

F: TU를 결합합니다. 64:35-74:17; 죄와 질병의 연결

다른 방향으로 돌아가서,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정말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옛날에 랜디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랜디는 키가 6 피트 4인치 정도 되는 큰 남자였고, 좀 마른 편이었어요. 당시 35세나 38 세였어요. 우리는 함께 이스라엘에 갔고 그는 정말 좋은 친구였고, 그와 정말 좋은 추억이 많아요. 그를 더 잘 알게 되면서, 그는 간에 말기 질환이 있다고 말했어요. 간에 무슨 문제가 있는 걸까요? 기본적으로 간은 하나뿐이고 신장은 두 개고 사람들은 항상 다른 것으로 바꿀 수 있지만, 간은 그렇지 않아요. 간이 망가지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간 질환을 앓았는데, 1억 명 중 4명이 걸린다고 해요. 이 질병은 너무 드물어서 미네소타 의 메이요 클리닉 같은 곳에서도 “이 질병이 뭔지 알아요. 치명적이라는 건 알아요. 죽는다는 건 알아요. 하지만 이 질병을 치료하는 방법은 몰라요. 이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은 전국에 4명뿐이에요. 너무 드물어서 연구도 많이 안 하고, 언제 발병하는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는 알아요. 하지만 어떻게 치료해야 할지는 몰라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랜디는 이런 일이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와 그의 가족에게는 정말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는 어린 딸이 있었는데, 당시 16살이었던 것 같아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10대 소녀였던 건 알아요. 상상해보세요. 키가 크고 강하고 튼튼한 아버지를 보고, 이 질병에 걸렸다는 말을 듣고, 이 질병이 그의 내장을 갉아먹고 있다는 걸 알고, 사랑하고 존경하는 아버지가 죽을 거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는 머리에 미친 짓을 하는 이런 강력한 약을 다 먹고 있어서 가끔 미칠 것처럼 행동해요. 사실 그는 정말 미쳤고, 훌륭한 사람이지만, 그래도 반쯤은 미친 짓을 해요. 장난기 어린 의미에서요. 그는 매우 창의적이고 함께 있으면 즐거운 사람이었고, 그저 절대적인 기쁨이었어요. 하지만 그런 약들이 그에게 뭔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랜디와 제가 이스라엘에 갔을 때, 우리는 사자문 바로 안쪽에 있는 베데스다 못으로 갔어요. 50~60야드 들어가서 오른쪽으로 돌면 베데스다 못이 있어요. 요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을 기억하시나요? 물에 대한 이야기인데, 불구가 된 사람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그 사람이 "나를 물에 넣어 줄 사람이 없어. 물이 움직이고 물의 치유력이 오면, 먼저 들어온 사람은 치유되지만 나를 물에 넣어 줄 사람은 없어."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괜찮아, 너는 괜찮아, 일어나." 예수께서 베데스다 못에서 이 불구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들은 실제로 예루살렘의 성 안 교회에서 베데스다 못을 발견했습니다. 성 안은 마리아의 어머니였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성 안 교회에 가서 기도했고, 저는

그의 치유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고쳐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는 그 후 몇 년만 살 것으로 생각되었는데,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저는 지금 고든 칼리지에 있는데, 인디애나의 그레이스 칼리지에서 가르쳤던 곳에서 백만 마일이나 떨어져 있습니다. 흥미로웠는데, 2005년에 우리가 함께 이스라엘에 간 지 8년이나 10년 후에 그는 아직 살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소식을 계속 듣지 못했습니다. 저는 페이스북을 하는 사람이 아니지만, 2005년과 2008년에 랜디가 아직 살아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기적으로 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요점은 랜디에게 친구들이 몇 명 있었는데, 그들이 교회에 갔는데 누군가가 와서 랜디가 말기 질환을 앓고 있다는 것을 알고 랜디와 그의 아내에게 다가와서 “당신의 삶에 고백하지 않은 죄가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병은 죄의 결과입니까? 이제, 우리가 이것을 여러 번 강조했음을 주목하세요. “당신의 삶에 죄가 있습니까? 당신의 삶에 고백하지 않은 죄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랜디, 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이런 일을 겪게 하시는 것입니까? 저는 누군가가 와서 그 질문을 하고 죄와 병을 연결하려고 하면서 랜디가 이 병에 걸린 이유는 그가 죄인이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이 그와 그의 아내에게 큰 상처가 되었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럴 근거가 없었습니다! 정말 추하고 터무니없습니다. 특히 그 사람들을 알지 못할 때 더욱 그렇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랜디를 존경합니다. 키가 6피트 4

인치이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의 성격과 그가 누구였는지 때문입니다. 그는 훌륭한 사람이에요. 저도 여러 면에서 그와 비슷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의 많은 특성을 제게도 원해요. 그러니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이런 연결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U. 치유에 대한 두 가지 극단적인 생각 - 영광의 헛간과 중단론자 [69:35-74 :17]

이제 당신은 "잠깐만요."라고 말합니다. 저는 당신이 죄와 질병 사이에 이런 연관성을 방금 확립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몇 가지 의문을 제기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질병의 목적에 대해 논의하고 싶은데, 저는 당신이 이것에 대해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잠깐 물러나서 다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다시 인디애나 북부에서 온 것입니다. 인디애나 북부에는 Glory Barn이라는 곳이 있었고, Hobart Freedman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이 사람의 지도를 받고 싶어서 그레이스 칼리지에 왔습니다. 그는 구약학자였고, 실제로 Moody Press에서 출판한 선지자에 관한 책을 썼습니다. 오늘날까지 선지자에 관한 가장 좋은 책 중 하나입니다. 30년 후에 이야기하는데, Hobart Freedman의 이 책은 훌륭합니다. 그는 내려와서 자신의 일을 하러 가서 Glory Barn을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카리스마 운동이 강해지고 있을 때였고, 그들은 기적적인 치유를 믿었고, 영으로 죽임을 당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들은

이런 기적적인 치유를 행했습니다. 그래서 일어난 일은 그들이 의사를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의사를 믿지 않았을 때, 이런 종류의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플 때, 그들은 모여서 기도했고, 그들이 기도한 후에 사람들은 치유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말로 치유하는 것에 관심이 있었고, 의사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께서 그의 종무니로 인해 우리가 치유되었습니다.”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때 일어난 일은, 이 Glory Barn 교회에서, 교회에서 죽은 사람들이 있었고, 병원에 갔다면 살릴 수 있었을 아기들이 죽었지만, 그들은 병원에 가지 않았습니다. Hobart Freedman 자신도, 제가 직접 그 이야기를 목격하지는 않았지만, 그의 다리에 굵은 상처가 생겨서 감염되었다고 들었습니다. 무언가가 감염되면 어떻게 될까요? 글썄요, 아시다시피, 감염되면 항생제를 먹으러 가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항생제는 감염을 죽이고, 14일 동안 복용해야 하고, 2~3일 후에는 감염이 거의 사라집니다. 항생제를 먹지 않으면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신께 기도해서 다리를 낫게 해 달라고”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감염되었을 때 치료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갑자기 괴저가 생깁니다. 괴저가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몇 단계 올라갔나요? 괴저가 생기고, 괴저가 다리로 올라가고, 갑자기 다리를 잃게 됩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병원에 가지 않습니다. 괴저가 있어도 죽일 수 있을까요? 답은, 예, 죽습니다. 그래서 이 영광의 헛간의

리더가 있습니다. 그는 스스로 죽습니다. 그래서 그는 꾸준히 치유를 위해 기도하지만 병원에 가지 않아서 죽습니다. 저는 그것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접근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죄와 병을 말하려고 하는 거군요. 그건 일대일의 문제이고 제가 제안하고 싶은 건 한 걸음 물러서서 신학 대학을 살펴보라는 거예요. 신이 제 뜻대로 움직인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신이 이 사람을 고쳐 달라고 요구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신이 그들을 고쳐 주실 거예요. 거의 마법과 같아요! 제가 기도하고 신이 고쳐 주니까 레버나 자동판매기가 있는 거예요. 레버를 당기면 사탕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신이 신성한 자동판매기예요. 이 사람이 아프면 제가 기도하고 신이 사람들을 고쳐 주죠. 제가 자동판매기를 당기면 그 사람이 고쳐져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겠어요? 신이 신성한 자동판매기라는 게 거의 마법과 같아요. 인생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죄와 병이 항상 그렇게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건 아니고 신에게 요구하면 신을 시험하는 거예요. 마치 예수께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시고 천사들이 그를 들어올려야 했던 것과 같습니다. 마귀가 시편에서 천사들이 그를 들어올릴 것이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음, 그것은 사탄의 유혹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종류의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치유를 믿는 사람들이 있어서 신이 마법처럼 모든 사람을 치유한다고 하며, 우리는 신에게

치유를 요구하지만 그럴 수 없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중단론자 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중단론자 란 무엇입니까 ? 그들은 신이 사도행전이 시작될 때 이 모든 기적을 행했다고 말합니다 . 이제 신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거나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신의 기적에는 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중단론자 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 신은 이러한 기적을 행하는 것을 “중단” 했습니다.

V. 기적과 구원 역사의 움직임 [74:17-78:07]

G: V-AB를 결합합니다. 74:17-94:18; **질병의 목적**

저는 수년 전 신학교에 다닐 때 로버트 배노이 박사가 가르친 것을 좋아합니다. 기본적으로 성경의 기적을 추적하는 것은 흥미롭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의 기적은 언제 일어났을까요? 요한계시록이 진행될 때마다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과정이 앞으로 나아갑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큰 방식으로 구원의 한 걸음을 내딛으실 것입니다. 예를 들어, 그들이 이집트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사막으로 데려가실 것입니다. 그는 노예들을 해방시켜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노예로 지냈던 그들을 해방시키고 이끌어내기 위해 이 모든 기적들이 있습니다. 모세가 물을 피로 바꾸는 열 가지 재앙, 메뚜기가 오는 곳, 해가 어두워지는 곳, 파라오와 그의 백성의 만아들이 모두 죽임을 당하고

이스라엘의 만아들이 모두 유월절 동안 살아남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가진 것은 모세가 그들을 인도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과정에서 큰 진전이 있고, 모세와 함께 일어나는 모든 기적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엘리사와 엘리야의 시대로 들어가고 이스라엘에 큰 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일하시고 그들을 되찾으려 하시고, 이 사람들, 엘리야와 엘리사, 이 선지자들과 함께 큰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예수의 시대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예수는 구원의 계획에서 또 다른 큰 진전이고, 예수와 함께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예수가 와서 무엇을 하시나요? 예수는 물 위를 걸으시고 빵과 생선을 많이 만드시고, 사람들을 고치시고, 한 소녀를 죽음에서 살리시고, 나사로를 죽음에서 살리시고, 그 자신도 죽음에서 부활하십니다.

교회와 유대를 끊고 아브라함 언약을 성취하는 측면에서 큰 진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땅과 씨와 축복을 얻으시고 이제 모든 민족에게 축복이 되실 것입니다. 갑자기 신약에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모든 민족에게 축복이 되고 다윗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나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갑자기 사도행전에서 기적이 일어나고 절름발이가 고침을 받고 베드로와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기적을 행합니다. 구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역사가 큰 진전을 이루면서 이 모든 기적이 일어납니다.

요한계시록은 어떻습니까? 마지막 때에, 마태복음 24-25장과 마가복음 13장의 올리브 산 설교에서 볼 수 있듯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위대한 진술들이 있습니다. 태양과 달이 어두워지고, 일어날 모든 기적들이 있습니다. 사실, 그들은 사탄을 통해 어떤 기적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경고이며, 택함받은 자들조차도 일어날 이 기적들에 속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에 접근함에 따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전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기적들이 다시 일어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날 신이 치유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중단주의자가 아닙니다. 좀 지나치다고 생각하지만, 치유를 지나치게 강조하거나 과소평가하는 것에 주의해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하느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모든 사람을 치유하실 것이기 때문에 의사가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것에는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것에 대해 생각하는 정말 오만한 방식이고, 조심해야 합니다. 한편으로는 신이 치유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신이 당신의 곡조에 맞춰서 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나. 질병의 목적 - 형벌과 회개 [78:07-81:07]

이제 저는 다른 이유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은데, 저는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글썄요, 여기서 잠깐 돌아와서 “인자”라는 용어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 “인자”라는 용어와 그것에 대한 언급이 예수께서 고쳐 주실 불구자 와 “인자”가 땅에서 죄를 용서할 권세를 가진 구절에서 사용된다는 것이 매우 흥미롭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여기서 일어나는 일은 워더링턴이 지적했듯이, 이것은 예수를 언급하기 위해 쓰여진 초기 교회를 반영한 것이 아니며, 예수의 원래 말씀입니다. RT

프랑스는 메시아가 아닌 “인자”에 대한 언급이 왜 예수께서 메시아가 아닌 “인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는 이 사람들을 고칠 것이고, 그가 민족주의적인 메시아를 원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러면 그에게 모든 정치적인 일들이 닥쳐올 것이고, 그는 다윗의 아들로 여겨집니다. 그러면 그는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모든 일을 해야 합니다. 로마에 맞서 로마의 명예를 벗어던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치유의 맥락에서 “인자”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이제 질병의 목적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저는 우리의 생각을 조금 더 넓혀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질병을 형벌로 사용하신 적이 있습니까? 답은 예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 사도행전 5장, 그들은 성령을 속였고, 그들은 치여 죽었습니다. 헤롯, 그의 오만함, “나는 신이다”와 같은 것, 그는 치여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예, 질병과 죄의 결과로 인한 형벌 사이에는 연관성이 있습니다. 죄는 형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회개로

이끄는 것일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 예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질병 때문에 사람이 회개하도록 강요당했습니다. 민수기 12장의 미리암이 그 예가 될 것입니다. 미리암은 나병에 걸렸습니다. 요점은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그의 사람, 그의 종인 모세를 존중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려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죄와 병 사이에는 많은 이유와 많은 연관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일을 하실 수도 있고, 병은 처벌일 수도 있지만, 처벌이 아니라 회개로 이끄는 것일 수도 있고, 사람을 회개로 이끄는 자극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벌과 회개. 병이 일으킬 수 있는 두 가지 일은 처벌이고, 회개의 수단으로서의 처벌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훨씬 더 긍정적인 다른 것들이 있습니다.

Y. 질병의 목적-욥기 [81:07-84:06]

욥은 어떨까요? 여러분이 욥기에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욥이 여러분의 좋은 친구이고, 욥기 1, 2, 3장에 와서 욥이 선택되었고 사탄이 하나님께 와서 욥의 모든 것을 빼앗으면 하나님을 대면하여 저주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욥은 내 사람이다. 이 땅의 모든 사람 중에서 욥이 최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탄은 "그래 맞아, 그가 최고야. 왜냐하면 당신이 그에게 이 모든 좋은 것들을 주셨기 때문이야. 당신이 그에게 주신

좋은 것들을 빼앗고 당신이 그에게 주신 축복을 빼앗으면 욥이 당신을 저주할 거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그의 모든 좋은 것들을 빼앗고, 욥은 그의 재산을 잃고, 그의 가족과 그의 자녀들을 잃고, 그들은 죽임을 당합니다 . 그러자 사탄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욥은 여전히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았고, 사탄은 “그렇다. 하지만 네가 그의 몸을 때리면, 비록 그가 모든 재산을 내주고 싶어하더라도, 그는 그의 자식들을 내주고 싶어하지만, 네가 그 사람 자신을 때리지는 않았다. 네가 그를 잡아서 질병으로 친히 때리면, 그는 네 얼굴에 너를 저주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 좋아, 가서 그의 몸을 때려라. 하지만 죽이지는 마라. 죽이지 마라, 그게 한계지만, 그의 몸을 때릴 수는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욥이 있는데, 제 생각에는 3장인데, 그는 고통 때문에 재에 앉아 몸을 긁고 있습니다. 이제 그의 몸이 맞고, 당신은 “욥이 병들었는가?”라고 묻습니다. 그는 죄가 많았기 때문에 몸에 이런 질병이 생겼는가? 아니요, 욥은 너무 착했기 때문에 이런 질병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은 욥이 세상에서 가장 뛰어나다고 말씀하셨으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욥의 병은 욥이 금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욥의 시험입니까? 그래서, 병은 실제로 그의 성격을 보여주고 드러냈고, 그의 빛이 빛나게 했습니다 . 랜디와 같은 사람을 볼 때, 저는 똑같은 말을 합니다. 그는 죽을 병을 앓고 있고 곧 죽을 거라는 걸 알고 있고 , 아이들과 사랑하는 아내를 걱정합니다. 그래서 랜디는 이런 것들에 대해

걱정하지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병은 그의 성격을 드러내게 합니다. 그래서, 죽음에 직면한 이 치명적인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을 볼 때, 사람이 죽음에 직면했을 때, 그들의 성격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당신은 볼 수 있듯이, 그 시점에서는 아무것도 숨길 수 없고, 그들의 성격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랜디의 경우, 그가 빛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이 병을 앓고 있고 자신이 죽을 거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욥은 아프지만, 그것은 욥의 지혜이고, 그의 성격과 미덕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욥은 처벌이나 회개의 수단으로 아픈 게 아니라, 그의 성격을 보여주기 위해 아픈 것입니다. 그것은 그의 성격을 드러내고 그의 성격이 더욱 빛나도록 해줍니다.

Z. 질병의 목적 - 겸손과 하나님의 영광 [84:06-86:52]

또 다른 측면은 겸손입니다. 저는 순종을 건너뛰었습니다. 하지만 좋습니다. 바울은 육체에 가시를 받았고, 이것은 고린도후서에서 나온 것입니다. 바울은 그의 "육체에 가시"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왜 육체에 가시를 가지고 있을까요? 저를 포함하여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알아내려고 노력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그의 눈이나 그런 것과 비슷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죽음의 지경까지 돌에 맞아서 망가지고, 망가지면 그 이후로는 결코 완전히 괜찮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육체에 가시를 가지고 있고, 그는 겸손을 유지하기 위해 육체에 가시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성격의 특정 측면을 개발하기 위해 질병을 줍니다.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을 알고 있습니까? 저는 고든 대학의 몇몇 친구들이 아내가 온갖 종류의 질병을 앓고 있다는 것을 떠올릴 수 있고, 일어난 일은 우리 성격의 특정 측면이 드러나게 하고, 겸손과 연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질병이 심판이나 처벌이 아니라 회개로 이끌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기 위한 것일 수 있을까요? 이 질병은 사실 요한에게서 나온 것인데, 괜히 끼어들어서 죄송하지만 요한복음 9장에서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눈이 멀었습니다. 그러니 질문은, 누구의 죄인가, 그의 부모인가? 그렇다면 그가 눈이 멀게 태어났다면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다시 말해, 죄와 질병 사이에는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그래서 그들은 죄와 질병 사이에 일대일 관계를 만들고 싶어합니다. 그러면 누가 죄를 지었을까요, 이 사람인가, 그의 부모인가? 예수님은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 이 사람의 눈이 멀었던 것은 특정 죄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 사람이나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예수님은 그들이 죄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눈이 멀었던 것이 그의 부모나 그의 부모가 죄와 아무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 이제, 예수께서 그의 눈에 진흙 파이를 바르시고, 그 남자는 씻으러 내려갑니다. 이제 그는 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시력을 주십니다. 예수께서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기 위해 눈먼 채로 태어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고치시고 그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병은 큰 그림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의 결과로 옵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병에서 나올 수 있는 매우 긍정적인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AA. 질병의 목적 - 연민과 지식 [86:52-91:16]

질병에서 나오는 것 중 하나는 히브리서 4:15를 참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하늘을 통과하신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가진 믿음을 굳게 잡자. 우리에게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는 대제사장이 계시지 아니하니라 . 오직 우리와 똑같이 모든 면에서 시험을 받으셨으나 죄는 없으신 이가 계시느니라.” 히브리서 4:15의 요점은 예수께서 자신이 연약해지셨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채찍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느니라.” 그는 다툼을 알고 죽음을 알았습니다. 그는 죽음을 이기셨고, 따라서 고통을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요점은 고통을 겪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연민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통을 깊이 겪은

사람은 연민 때문에 다른 사람을 깊이 감동시킬 수 있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에 대한 연민을 느낍니다. 연민은 인간 사이에서 정말, 정말 중요한 측면입니다. 사람은 어떻게 연민의 감정을 키울 수 있을까요? 그들 스스로 병을 느꼈기 때문에, 암 환자, 심장마비나 심장 수술을 받은 사람, 그 사람은 다른 사람에 대해 깊은 연민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것의 예는 홀로코스트로 고통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소냐 바이 츠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녀는 고든 칼리지에 와서 그녀의 홀로코스트 경험을 설명하곤 했습니다. 그녀는 홀로코스트 생존자였고, 그녀는 그 공포를 설명하곤 했습니다. 이 여성은 다른 사람들에게 매우 연민을 가졌습니다. 그녀는 고통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통을 겪은 사람들은 종종 다른 사람들에게 연민을 가질 수 있는 엄청난 능력을 가질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통을 통해 사람들이 연민을 갖고 다른 사람들을 연민 어린 방식으로 사랑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서: 죄가 질병과 관련이 있습니까? 아니요! 때때로,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일 수도 있고, 때때로 그것은 겸손이나 다른 측면, 그들을 겸손하게 유지하는 육체의 가시, 죄와 병의 다른 측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연민을 가질 수 있다는 것, 이 사람이 이 시점에서 아플 수 있다는 것,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삶에서 20년 후에 끔찍한 병을 앓을 사람을 만날 것이고 그들이 그 사람을 놀라운 방식으로 돌볼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연민이 있고, 물론 심판의 요소가 있을 수도 있고, 이 사람을 회개로 이끌 수도 있지만,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당신은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사람이 아플 때, 그들은 독감에 걸리고, 폐렴에 걸립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당신은 그것을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모릅니다. 그래서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당신이 이런 종류의 입장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가장 싫어하는 성경 구절 중 하나입니다 . [아이러니] 전도서 1:18. 많은 사람들이 전도서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것이 성경에서 가장 좋은 책 중 하나라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그것은 기본적으로 “고난을 통해 지식이 온다”고 말하고, 우리는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고대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말했듯이, 고통은 지식을 가져옵니다. 그러므로, 저는 고통이 죄와만 관련이 있는 것처럼 고통을 무시하고 싶지 않습니다. 아니요, 때때로 고통은 질병을 통한 죄에 대한 심판 외에도 온갖 다른 목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때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삶에서 질병을 사용하실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유를 인식하고 이를 사용하여 삶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해 봅시다. 저는 그리스도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해야 하고, 질병이 닥쳤을 때 제 성격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런 종류의 일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질병은 사람의 핵심을 드러냅니다.

AB. 오늘날의 치유 - 의사, 의학 및 질병의 목적 [91:16-94:18]

우리 는 예수께서 의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셨다고 말했습니다. 마가복음 2:17,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하니라” 예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약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이 구절이 나오는데, 꽤 흥미롭다고 생각합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아들과 같습니다. 육체적으로는 아니지만 영적인 아들입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멘토링을 받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물 마시기를 멈추라고 말합니다. 그가 물을 마시면 아플 것입니다. 고대 세계에서, 여러분 중 일부는 중동을 여행한 적이 있을 텐데, 아시다시피, 많은 곳에서 물을 마시지 않습니다. 정말 아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에게 물 마시기를 멈추고 대신 위장을 위해 포도주를 마시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포도주는 박테리아를 죽이고 포도주로 인해 아플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손을 씻는 것과 같은 특정한 의학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구약성경처럼, 항상 씻어야 깨끗이 할 수 있습니다. 세균을 없애는 건 똑똑한 짓일 뿐입니다. 그러니 똑똑하게 행동해야 하고, 바울은 약이 필요하다는 걸 인정합니다. 이 경우 디모데의 위장을 위한 와인이었습니다. 모든 병이 죄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고, 예수께서 태어날 때부터 눈이 먼 사람은 그 사람이나 부모의 잘못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눈이 멀게 태어났습니다.

제가 좋아하고 다른 맥락을 개발하는 또 다른 훌륭한 구절은 누가복음 13:4 이하입니다 . 무너져 약 13명을 죽인 탑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큰 죄인이었는가? 탑이 무너져 그들을 죽였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큰 죄인인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아니요, 무너진 것은 그들의 죄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특정한 일을 하시는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이유로 이런 일을 하셨다고 말할 때, 당신은 하나님의 이유를 알 만큼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아내의 생각을 읽어서 그녀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무한하고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생각을 읽고 그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무언가를 하셨는지 알 수 있습니까? 그가 왜 무언가를 하셨는지 말씀해 주지 않는 한, 저는 추측만 할 뿐입니다. 때로는 아내가 하는 일 중 일부의 이유를 추측조차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예수께서는 그 사람들이 더 나쁜 죄인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더 나쁜 죄인이 아니었습니다. 탑이 무너졌지만 그들은 더 나쁜 죄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그런 연관성을 찾을 수 없습니다.

바울 자신도 병들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2:7에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를 겸손하게 유지하기 위해 주신 자신의

육체의 가시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 육체의 가시는 좋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도서는 병이 지식을 얻는 수단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자신의 성격이 빛나는 것도, 우리는 옳과 함께 앞서 언급했습니다.

AC. 예수의 치유 - 죄를 용서하는 것은 치유하는 것보다 쉽습니다 [94:18-98:58]

H: AC-AG를 합치라; 94:18-111:45; 치유와 왕국

이제 우리는 예수께서 사람들을 고치시는 것을 봅니다. 이 치유와 예수를 왕국과 연관시켜 보겠습니다. 예수에 대한 아름다운 것 중 하나는, 제 생각에, 예수와 함께 하나님의 왕국이 지상에 침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걸을 수 없는 불구자에게 다가가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네 죄가 용서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뭔가를 건너뛰었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네 죄가 용서되었다”고 말하는 것이 더 쉬운가요 아니면 “일어나 걸어라”고 말하는 것이 더 쉬운가요? 예수께서는, 내가 일어나 걸으라고 하면 네가 걸으면 죄가 용서되었다는 것을 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이 경우 죄와 질병 사이에 어떤 종류의 연관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 사람에게 일어나 걸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마도 예수께서는 그 사람의 생각을 덜어주시는 것일 수도 있고, 어쩌면 그 사람은 자신이 죄를 지었다고 생각해서 불구가 되었을 수도 있고, 예수께서는 그 사람 에게 자신의 죄가 용서되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 말씀하실 필요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스스로 용서를 알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 죄가 용서받았다고 말하는 게 더 쉬운가요 아니면 일어나서 걷는 게 더 쉬운가요? 글썄요, 이런 식이에요. 인디애나주의 최고 보안 교도소에서 가르쳤을 때 친구인 마이크가 있었는데, 마이크는 키가 6'5'', 몸무게가 250 파운드 인 큰 녀석이었고 , 교도소에서 기록을 세웠어요. 이 녀석들이 하루에 8시간씩 웨이트를 들어올리는 곳인데, 벤치프레스 기록을 세웠어요. 440파운드나 480 파운드 였던 것 같아요 . 몇 파운드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아요. 하지만 마이크는 큰 녀석이었고, 벤치프레스로 480파운드를 들어올렸어요. 그러니까 죄와 병은 관련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아니라고 말하고 싶어요. 마이크가 벤치프레스로 480 파운드 를 들어올릴 수 있다면, 150 파운드 를 들어올릴 때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 그렇게 많은 양을 들어올릴 수 있다면, 적은 양은 아무것도 아닌 것과 마찬가지인가요? 그가 480 파운드를 들어올릴 수 있다면 , 그는 아마도 한 손으로 100 파운드를 들어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만약 당신이 더 큰 것을 들어올릴 수 있다면, 물론 당신은 더 작은 것도 들어올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 이것을 더 강력한 것을 들어올릴 수 있다면, 당신은 확실히 더 작은 것도 들어올릴 수 있습니다.

이제 다시 논증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은 내가 그에게 일어나 걸으라고 하면, 그는 자신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알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것이

더 어렵습니까? 일어나 걸어가는 것과 죄를 용서하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어렵습니까? 예수님은 일어나 걸어가는 것이 더 어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안다면, 당신은 당신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압니다. 이제, 아마도 외부적이고 내부적인 것들처럼, 당신은 이 사람이 일어나 걷는 것을 볼 수 있지만, 그의 죄 용서는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더 어렵다고 말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저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다면, 그는 때때로 죄의 결과를 다루는 것이 죄 자체의 용서보다 더 어렵다고 말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죄의 결과를 다루는 것은 때때로 죄 자체의 용서보다 더 어렵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은 죄를 용서받을 수 있지만, 그 결과는 여전히 따릅니다.

예를 들어, 보스턴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할머니가 차 안에 있고, 85세이며, 차를 운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벽 앞에 아이가 서 있습니다. 할머니가 벽으로 다가가서 브레이크를 밟아 차를 멈추려고 합니다. 그래야 아이를 벽에 밀어붙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브레이크를 밟는 대신 가속 페달을 밟습니다. 발이 약간 경련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브레이크 대신 가속 페달을 밟아서 아이를 깔고 벽에 밀어붙여 죽입니다. 이제 질문입니다. 할머니가 아이를 죽인 것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고의로 그랬습니까? 악의나 선견지명이 있었습니까? 아니요, 할머니는 85세이고, 아마 차를 운전해서는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네,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를 용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질문: 결과를 되돌릴 수 있습니까? 아이가 죽었는데, 그 결과를 되돌릴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죄의 결과는 죄 자체보다 다루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녀는 용서받을 수 있지만 아이는 여전히 죽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사람이 어떤 죄스러운 행동을 하고 용서받을 수 있지만, 종종 그들이 한 일의 결과는 되돌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과는 그대로입니다.

서기 98:58-101:47 치유와 왕국-이미 그러나 아직은 아니다

이제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죄의 용서와 마찬가지로 결과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결과를 뒤집을 수 있습니다. 일어나서 걸어가세요.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더 큰 것을 할 수 있으므로 더 작은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당신은 예수님이 침입하고 사람들에게 다가가 사람들을 고치는 왕국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평생 보지 못하는 맹인이 갑자기 눈을 고치고, 손이 불구가 되어 그 사회에서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손이 불구가 되어 있으면 "너는 고침을 받았다." 백부장의 하인의 경우처럼 힘든 시간을 보내고 병을 앓고 있고 귀신과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말씀을 전하고 그를 고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연민입니다. 베드로의 장모에게도

예수께서 그녀를 만지시자 열병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또한 예수께서 무화과나무에 올라가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시고, “무화과나무야, 너는 무화과를 맺지 못하였구나”라고 말씀하시고,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시고 뿌리부터 말라죽게 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께서 오셔서 당신은 하나님의 왕국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신은 예수께서 주시는 왕국이 이미 존재함을 보게 됩니다. 왕국은 이미 여기 있고, 예수께서 여기 계시고, 당신은 예수님의 개입, 왕국이 들어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아직은 아니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는 완벽한 상태에서 살지 않고, 모든 것이 완벽하지 않으며, 모든 사람이 치유되지는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조만간 죽을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이 있고, 병이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왕국은 어떤 의미에서 이미 여기 있지만, 아직은 아닙니다. 데이브 매튜슨, 조지 레드 등이 발전시킨 훌륭한 주제로, 이미 있지만 아직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치유와 예수님의 기적에서 하나님의 왕국을 엿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 이런 “광, 광”하는 기적들이 있지만, 모든 사람이 치유되지는 않습니다. 죄, 병, 죽음이 여전히 지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한계시록 21장과 그 이후에, 더 이상 병이 없고, 병과 죽음이 달아나고, 모든 눈물이 씻겨질 날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이 오는 날이 있습니다. 우리가 본 것처럼, 우리는

그것을 예고했고, 엘레인 필립스 박사가 “아담브레이션”이라고 부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아담브레이션, 왕국의 예고를 보았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왕국이 침입하는 것을 엿보게 하셨고, 우리는 그것을 보고, 그것은 놀랍습니다. 그 왕국은 올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 그리고 언젠가, 죄와 질병이 끝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위대한 날이 될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기대합니다.

AE. 두 가지 지리적 “모순” – 티로 와 시돈 [101:47-105:29]

이제 마가복음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기서 몇 분 더 걸릴 겁니다. 저는 마가복음에서 기본적으로 모순으로 여겨지는 것에 대해 다루고 싶습니다. 이는 이러한 지리적 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비평가들이 성경에서 오류를 만든다고 말하는 두 가지 지리적 문제가 있으며, 저는 성경에서 발견되는 이러한 “모순”에 대해 다루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지리적 위치에 관심이 없지만 누군가에게 보스턴이 메인에 있다거나 보스턴이 뉴욕에 있다고 말했다면, 분명히 당신은 거기에 지리적 실수를 한 것입니다. 보스턴이라는 작은 마을을 언급하지 않는 한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마가복음 7:31이 있는데, 그것은 티레 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티레 근처를 떠나 시돈으로 가서 시돈을 지나 데카폴리스 지방으로 내려가 갈릴리 바다에 이르렀다.” 데카 -텐, 폴리스-도시. 하지만 질문은

이렇습니다. 순서에 있어서 모순이 있는 듯합니다. 그는 티레 에 있었고 , 갈릴리 바다로 내려갔는데, 그것은 아래쪽에 있고, 그는 북쪽에서 남쪽으로 갔습니다. 이제 이 지도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지도가 그것을 정확하게 보여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기 티레 라는 도시가 있고 ,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로 가신다고 쓰여 있습니다. 예수께서 티레 에서 가신 후 , 시돈으로 올라가 갈릴리 바다로 내려갔습니다. 비평가들은 "잠깐만요, 얼마나 어리석은지 알 수 있나요? 옳지 않습니다. 티레 에서 갈릴리 바다로 가려면 여기를 지나 남동쪽으로 내려가야 합니다. 북쪽이 아닙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께서 시돈으로 올라가셨다가 내려오셨는데, 사람들은 그것이 성경의 오류이고 모순이라고 말합니다. 글쎄요, 사무엘하에서 이것이 실제로 다소 이상하다는 것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사무엘하 24:6, 다윗의 사람들이 인구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인구 조사를 실시했고, 그가 한 일은 나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24:6, "다윗의 사람들이 인구 조사를 실시하던 중에 티레 에서 시돈으로 갔다가 다시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무엘하 24장에 기록된 예수가 걸었던 길과 같은 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걸어다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일들이 일어난 곳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알았고, 사무엘하 24장에서 예수께서 티레 에서 시돈으로, 갈릴리해로 내려가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제가 90번

국도를 타고 뉴욕 올버니로 가고 싶다고 말하고 보스턴 북쪽에 있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제가 90번 국도를 타려면 남쪽으로 가야 한다고 말씀하시지만, 아니요, 북쪽으로 갑니다. 왜 북쪽으로 가는 것일까요? 저는 북쪽으로 가서 495번 도로로 갑니다. 왜냐하면 북쪽으로 약 5마일 가서 495번 도로를 타면 보스턴 교통을 전부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은요. 다시 말해서, 저는 서쪽과 남쪽으로 가야 하는데, 대신 북쪽으로 가서 495번 도로를 타고 더 잘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택하는 특정 경로가 있고 티레 에서 시돈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것 사이의 연결은 일반적인 경로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모순되는 것도 아니고, 큰 문제도 아니며, 그들은 조금 진정해야 합니다.

AF. 두 가지 지리적 “모순” - 게라사와 갈릴리 바다 [105:29-108:56]

이제, 게라사는 마가 복음 5장에서 군단이라는 귀신이 든 귀신 들린 사람에게 대해 다룹니다. 예수께서 귀신들을 돼지들 속으로 쫓아내시자 돼지들이 갈릴리 바다로 달려가 빠져 죽었습니다. 그게 게 라사 귀신 들린 사람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사람들이 잠깐만요, 이 게 라사 귀신 들린 사람은 게 라사 출신 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게라사가 갈릴리 바다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경에 또 다른 작은 결함이 있다고 말합니다. 지리적으로 게라사는 갈릴리 바다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것이 성경의

모순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들이 옳습니다. 그렇다면 지도를 보고
 갈릴리 바다로 가서 게 라사를 발견하고 갈릴리 바다 에서 약 25, 30마일
 떨어져 있음을 알게 됩니다 . 그러므로 게라 사는 갈릴리 바다에 없습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알아챘습니다. 우선, 여기에는 연결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갈릴리 바다로 항상 오가고 있는데, 게 라사 사람들이 왜
 갈릴리 바다로 내려갈까요?저기 물이 있잖아요!그러니까, 그들은 항상 여기로
 오가고 있을 테고, 그래서 위치는 서로 바로 위에 있지는 않지만 꽤
 가깝습니다. 저는 펜실베이니아의 유명한 호수에 사는 처남이 있습니다. 그는
 호수 바로 위에 살지 않고, 호수에서 떨어져 살고 있지만, 호수 건너편에
 집이 있습니다. 그는 호수에 배를 둘 수 있는 지상권이 있어서 호수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상권은 기본적으로 그가 호수 바로 위에 살지는
 않지만, 호수와 연결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게라사 에 있는 이 사람들은 호수까지 통행권이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큼니다
 . 왜냐하면 그들은 주요 도시였고, 호수에 접근할 수 있는 통행권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사람들은 이 영토를 알고 있었고, 이 영토를 걸었고,
 그래서 게 라사 에 있는 이 사람들은 이 통행권을 가지고 있었고 호수 아래에
 게
 라사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 올해 학생 중 한 명이 제 생각에 흥미로운 점을
 제기했습니다. 그들은 게라사가 이곳의 주요 도시일 수 있다고 말했고,

누군가가 당신에게 어디에서 왔는지 물었을 때 인디애나 주 워소라고 대답하면, 왜 제가 워소 출신이 아니라면 “워소”라고 말해야 할까요? 사실 저는 위노나 레이크 출신입니다. 하지만 제가 위노나 레이크라고 말하면, 그곳은 너무 작아서 아무도 위노나 레이크에 대해 신경 쓰지 않습니다. 아주 작고 시골스러운 마을입니다. 모두가 워소를 알고 있고, 인구는 25,000명에서 35,000명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안다면 워소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큰 도시는 아니지만, 사람들은 워소를 알 가능성이 있지만, 위노나 레이크는 빌리 선데이를 모르는 한 아무도 모를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들이 그 지역의 주요 도시로 게라사를 지명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AG. 마가복음의 끝 (막 16:9 이하) - 주요 본문 변형 [108:56-111:55]

이제, 다른 한 가지, 그럼 마가복음에 대한 논의는 그만하겠습니다. 마가복음의 끝은 16장 8절에서 끝납니다. 대부분의 번역본은 거기에 선을 그었고 우리는 주요 텍스트 변형을 봅니다. 우리는 텍스트 변형에 대해, 기억하시겠지만, 과정의 시작 부분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큰 것 중 하나입니다. 마가복음 16장 8절은 예수님께 일어난 부활 이후의 일들을 말합니다. 16장 8절에서 끝냈다면, 겁에 질린 여인들이 나옵니다. 이 여인들은 죽을 만큼 무서워합니다.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셨고 이

여인들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내려고 애쓰고 죽을 만큼 무서워합니다. 저는 여인들이 두려움과 떨림으로 끝맺는 것이 마가복음의 저자이자 로마인들의 독자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제안하고자 합니다. 사실, 그 짧은 결말은 마가복음에 아주 좋은 결말입니다. 하지만 마가복음은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마가복음의 긴 결말에서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뱀을 집어도 해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뱀을 다루는 사람들과 뱀을 다루는 사람들의 기초가 됩니다. 성경은 뱀이 당신을 괴롭히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방울뱀에게 물려도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보라고 말합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특히 무언가가 주요한 본문 변형일 때는 매우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뱀을 집어 올리라고 말합니까?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본문 변형에서만 그렇게 말한다면, 본문 변형에 주요한 신학적 요점을 두지 마십시오. 그래서 뱀을 집어 올리고 뱀이 당신을 물게 한 다음 당신이 도망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 매우 조심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그것은 본문 변형의 문제이고, 성경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곳은 그곳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고 말할 때, 성경 전체에서 그것에 대해 언급합니까? 당신은 그것을 백 군데에서 반복해서 말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주요 교리는 이러한 텍스트 변형 없이 견고한 텍스트에 기초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거듭거듭 언급했던

성경의 주요 요점에 집중하고 텍스트 변형을 포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당신의 철학을 독특한 텍스트 변형에 기반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훌륭한
구절이고 긴 결말이며 읽기에 좋지만 완전히 다르고 이상한 것에 너무 많은
무게를 두지 마십시오.

Jenny Machado가 필사함

Ben Bowden 편집,

Ted Hildebrandt 편집, Rough 편집